

72. 유다서

한 장으로 이루어진 유다서는 머리말에서 자신을 ‘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’로 소개하는데 열 두 제자 가운데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추정됩니다.(마르 6,3; 마태 13,55)

유다서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 정통 신앙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. 그들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,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,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욕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와 그 주변 고을들, 살인자 카인과 탐욕가 발라암과 반역자 코라처럼 결국 하느님께 벌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알립니다.

그러면서 “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,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. 아멘”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담은 찬가로 마무리합니다.